

【논 문】

석고화한 기억의 재구성과 봉오동전투의 배경*

—1919, 20년 시점에 동만주지역의 운동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신 주 백**

┌ 차 례 ─┐

- I. 머리말
- II. 191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 공간의 비교와 재구성
- III. ‘독립전쟁 제1회전’과 통합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
- IV. ‘독립군 기지 봉오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전쟁 준비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운동 공간의 특성과 그에 따른 활동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봉오동전투의 배경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의 출발점은 동만주지역의 1919,20년이란 시기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와도 달랐다는 문제의식이다. 또 그 시기 민족운동 내부의 움직임의 균질하고 평면적으로도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 공간은 독립군의 활동공간과 주요 활동 방식(민정 대 무장)에서 볼 때 두 개의 공간, 곧 연길현, 화룡현과 왕청현, 훈춘현으로 구분된다. 단체로 표현하면 대한국민회와 군무도독부, 북로군정서가 대표 조직이다.

군무도독부를 비롯해 북로독군부의 활동공간인 봉오동은 ‘독립군 기지’였다. 연길현과 화룡현에 없던 독립군 기지가 봉오동에는 있었다. 동만주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HK+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역의 민족운동을 하나로 보아온 석고화한 기억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현상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보아야 두만강과 인접한 동만주지역 가운데 봉오동에서 전투가 벌어진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주제어 : 기억, 민족운동, 독립전쟁론, 대외정세활동론, 봉오동전투, 이동휘

I. 머리말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시기를 전후하여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민족운동을 새롭게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¹⁾ 특히 해외에 새로운 민족운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독립군기지건설운동으로 나타났다. 남만주의 삼원포, 동만주의 용정과 국자가 일대, 북만주의 한흥동,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이 바로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 관내지역의 한 곳인 상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런데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거부하는 민족운동은 중국과 시베리아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의 여러 지역, 남미와 유럽에서도 있었다.

민족운동이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정세가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같은 이념을 지향하더라도 지역별로 운동의 전개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하면 민족운동가가 어떤 지역을 활동 공간으로 선택하느냐는 그 스스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항일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의 선택이 민족운동가 자신의 정치이념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반드시 말하기는 곤란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1) 이 글은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제3회 학술 세미나(2018.3.23.) 때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필자는 민족주의운동 계열이 다양한 운동공간에서 활동했지만 공통의 전략론을 가지고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 이후의 건국을 전망했다고 본다. 그들은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전략론을 독립전쟁이라 부르며²⁾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독립전략에 대칭하는 전략론이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조선혁명론이었다.

민족운동이 사회주의운동 계열과 민족주의운동 계열로 분화하기 이전까지 독립전쟁론이란 전략론을 가장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은 만주지역이었다. 한반도와의 인접성, 접근성, 생산활동에 거주하는 한인사회의 형성과 자연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 그래서 신민회 이래 민족운동가들도 이곳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독립전쟁의 구체적 실행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목받은 기간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즈음까지와 1931년 9월 이후 일상적 무장투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필자는 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을 설명할 때 그곳의 공간을 동만주, 남만주, 북만주로 크게 구분하겠다.³⁾ 만주지역은 한반도보다 최소한 다섯 배 이상

2) 신주백, 2015, 『일본 조선사학계의 한국 민족운동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1945~20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429쪽. 共立協會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3) 흔히들 북간도, 서간도, 북만주 또는 북간도, 남만주, 북만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공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해 심사숙고한 연구는 없었다. 용어 자체로만 따지면 남만주의 대칭 개념은 북간도보다 동만주가 더 적절하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연구자와 비연구자를 불문하고 방향성과 공간의 위치점을 막연하게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용하는 동만주에는 백두산 우측에 있는 안도현이 들어가지만, 북간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더구나 북간도, 서간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시기와 공간의 측면에서 모두 제한적이었다. 북간도, 서간도라는 용어는 아무리 시간을 확장해도 1920년대 초반을 넘어서까지 민족운동자들이 사용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서간도라는 용어는 1920년대 중반경부터 활발해지는 길림 등지의 민족운동을 포함하지도 못한다. 운동 주체라는 측면을 더 확장해 살펴보면, 동만주와 남만주가 훨씬 타당한 개념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1924년에 결성된 정의부의 청년단체가 남만청년총연맹이었다. ML그룹 청년조직이 남만청년총동맹이었다. 비슷한 시기 동만주와 북만주 지역의 청년단체는 동만청년총동맹, 북만노력청년총동맹, 북만조선인청년총동맹에 가입하였다. 신민부의 군정파에 대해 민정파가 개최한 집회의 이름이 북만주민대회였다.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때 조선인도 가입하여 활동한 중국공산당 조직의 이름이 동만, 남만, 북만 특별위원회 등이었다. 만주지역에서 민족운동이 본격화하는 1920년대 초중반경부터 운동의 주체들은 시기와 이념을 불문하고 자신의 활동공간

넓은 곳이었기에 공간을 구분하여 보려는 접근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운동 양상도 이러한 공간 구분과 근접하게 따르므로였다. 때문에 운동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운동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19,20년 민족운동의 前史로서 1910년대 운동 양상도 마찬가지이다. 선행연구와 역사교육은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을 설명할 때 1906년에 설립된 서전서숙이란 첫 근대학교와 한인의 이주를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무장투쟁보다 한인사회의 형성과 자치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남만주지역의 삼원포를 설명하는 경우 신흥학교와 부민단,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해 왔다. 접근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도 1910년 망국 이후 활발하게 움직이며 새롭게 출발한 지역인 삼원포를 중심으로 하는 남만주지역과 국자가 및 용정을 중심으로 하는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을 비교하겠다.

그렇다고 만주지역을 세 공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민족운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데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세 공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족운동의 역동성을 반영하여 시기에 따라 공간 사이의 관계가 바뀐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남만주지역에서 유하현 삼원포와 통화현 합니하가 1910년대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다면, 1920년대 중반으로 가면 반석현과 집안현 일대도 그에 못지 않는 중심지였다. 핵심 운동공간이 확장된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로 가면 합니하와 집안현은 국민부와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중심 공간이 아니었다.

공간 내부의 역동적 관계는 동만주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만주지역 한인사회의 핵심 공간은 국자가와 용정이 있는 연길현이고 그에 인접한 화룡현이다. 그리고 왕청현과 훈춘현도 빼놓을 수 없다. 네 곳을 북간도로 통칭해도 무리가 없다. 네 개 현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시기는 1919,20년이다.⁴⁾ 이 글은 그 시기의

을 동만, 남만, 북만으로 구분하였다. 주체가 그렇게 상상했던 것이다.

4) 당시 중국측 행정관청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1914년 성립한 연길도운공서는 4개 현과 돈화

민족운동을 하나의 공간관념, 달리 말하면 북간도라 말하든 동만주라 부르든 균질한 공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필자는 내부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으며 민족운동의 양상을 확일적으로 해석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석고화된 기억’이라고 부르겠다.

1919,20년 시점에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을 하나의 균질한 공간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두만강과 인접한 이 지역의 여러 곳 가운데 왜 봉오동에서 1920년 6월에 전투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해 10월의 청산리전투와 비교할 때, 봉오동전투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독립군과 일본군의 싸움이었다면, 청산리전투는 독립군이 백두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추격해 오는 일본군 선발대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기 위해 선택한 장소에서 일어난 싸움이었다. 전자가 좁게는 봉오동 일대, 넓게는 동만주지역의 주객관적 상황까지 이해해야만 납득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라면, 후자는 민족운동의 동향만 알아도 납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확일화되어 있고 석고화한 기억을 새로운 접근으로 재구성하면 연길현과 화룡현에서 활동한 민족운동 세력에게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선, 곧 1919,20년 시점에 ‘독립군 기지로서 봉오동’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필자가 논문을 쓰게 된 동기이자 연구목적이 여기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제Ⅱ장’은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공간을 구분하며 비교하는데 할애하였다. 더불어 봉오동의 위치와 상황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가 간과해 온 봉오동전투의 조건, 그리고 1919,20년 시점에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 공간을 새롭게 구분해 보겠다. 이때 1910년대 민족운동의 기본양상을 압축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쉽고, 일반적인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지도를 제시하며 분석하겠다.⁵⁾ 그리

현, 액목현, 영안현, 동녕현까지를 관할하는 기관이었고, 1929년 연길교섭처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는 4개 현의 행정과 외교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5) 본문에서 인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는 비록 15년 전에 제작되어 다소 아쉽지만, 191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기본 동향을 매우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運動像을 그리는데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

하면 석고화한 기억을 간단하면서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제Ⅲ장’은 봉오동전투가 일어난 또 다른 배경으로서 통합 임시정부가 내세웠던 독립전쟁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해명하겠지만, 봉오동전투 참가자들은 자신의 싸움을 ‘독립전쟁 제1회전’이라 명명하였다.⁶⁾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부른 데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간주하며 준비한 통합 임시정부의 움직임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었다. 선행연구는 봉오동전투와 1920년 시점에서 통합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을 연관시키지 못하였다. ‘제Ⅳ장’은 동만주지역 민족운동 공간이 균질하지 않고 크게 보면 둘로 구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곳의 독립군이 지향한 독립전쟁론이 무엇이며, 운동 주체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보았다. 대한민국회와 군무도독부, 북로군정서의 상황과 그들 사이의 통합 움직임을 밝힘으로써 이를 해명하였다. 이때 통합 논의의 중심 공간이 ‘독립군 기지로서 봉오동’이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였다.

Ⅱ. 191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 공간의 비교와 재구성

1. 민족운동의 공간으로서 남만주와 동만주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 지역 민족운동의 동향을 압축하려면 다음 지도와 같이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신용하가 처음 해명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신용하, 1986,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한국학보』 43, 15쪽 참조. 따라서 독립전쟁이란 측면을 간과하고 봉오동전투를 이해하는 접근은 전투의 역사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지도 1) 1910년대 만주·연해주 지역의 주요 민족운동 세력 분포



출전: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169쪽.

위의 <지도 1>에서 시사하는 점은,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이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있었던 시점까지 삼원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간도 또는 남만주지역과, 국자가(연길)과 용정을 중심으로 하는 북간도 또는 동만주지역, 그리고 북만주지역의 한흥동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국경 감시가 애매하여 월경이 자유로웠던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도 1910년대 민족운동의 주요 공간에 포함할 수 있다.

네 지역 가운데 이미 한인사회가 상당히 형성되기 시작한 용정과 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동만주지역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민족운동가의 이주는 곧 개척을 의미하였다. 그런 곳 가운데 기지를 개척하는데 성공한 곳이 남만주의 유하현 삼원포였다. 그 중심에 이회영 일가 60여명과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주한 석주 이상룡 등이 있었다.

이회영 일가는 1910년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너 7,8일 걸려 환인현의 횡도천에 도착하여 일단 휴식을 취하고, 2월 초순경 유하현 鄒家街에 도착하

였다. 삼원포와 5km정도 떨어진 추가가에는 鄒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 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은숙은 이들이 강냉이와 좁쌀, 두태고를 수확하며 살았고, 쌀은 2,3백리 나가 사올 정도로 진귀한 것이어서 ‘좋다밥’이라고 말할 정도였다.⁷⁾ 이곳은 첩첩산중에 있는 곳이었지만, 삼원포에서 유하 방향으로 는 비교적 평평한 지형이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兵農一致를 꾸려 가는데 유리한 곳이었다.⁸⁾ 산림이 우거져 있고 미개간지가 많은 반면에 중국인과 충돌할 염려가 적어 개척의 여지가 있었다. 일본경찰이나 그 스파이를 비롯해 외부인이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접근했을 때 파악하기도 쉬웠다.⁹⁾ 더구나 두만강과 인접한 동만주지역과 달리 압록강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선총독부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1911년 늦봄에서 음력 5월 14일 사이에 민단 성격의 자치조직으로 설립된 耕學社를 중심으로 교육 및 생산과 관련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5월에는 신흥강습소를 통해 새로운 군사인재를 육성하려 하였다. 신흥강습소는 1912년 7월 이석영의 재정지원으로 합니하에 교사를 신축하고 군사교육에 매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 신흥학교란 명칭도 사용하였다.¹⁰⁾ 신흥강습소는 4년제의 본과에다 6개월, 3개월의 속성반이 병설되었다. 본과란 중학교정을 말할 것이고, 속성반이란 군사과를 의미할 것이다.

김산은 회고에서 신흥무관학교의 각종 군사교육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가를 명확히 시사해 주었다.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 게릴라 전술. …… 우리는 등에 돌을 지고 걷는 훈련을 하였다. 그래서 아무 것도 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경쾌하게 달릴 수 있었다. 한국의 지세, 특히 북한 의 지리에 관해서는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 ‘그 날’을 위하여.¹¹⁾

7) 이은숙, 1981,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51쪽.

8)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14쪽.

9) 이러한 입지 조건이라면 韓興洞도 그 가운데 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흥동 건설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유준기, 2005, 『독립운동 기지 한흥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이승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제Ⅲ장』 참조.

10) 서중석, 2001, 위의 책, 111-114쪽.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육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 게릴라전 형식으로 국내진공작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산악전에 필요한 체력 훈련과 전술 교육에 특별히 집중했던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운동공간이 북간도, 곧 동만주지역이었다. 1910년대 동만주의 용정과 국자가 등은 삼원포와 달리 이미 조선인이 다수였다. 1910년 이전부터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서 있었다. 한인사회는 1907년 8월 墾民教育會, 1913년 간민회 등을 결성하고 자치활동을 벌였다. 1914년 간민회가 해산된 이후 동만주지역 한인사회에서 활동한 단체들도 자치를 지향하는 한편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¹²⁾ 이들 단체는 무장활동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었다.

한인사회가 벌인 특별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미래세대를 기르는 교육활동이었다. 서전서숙 이래 용정과 국자가 일대에서 실시한 서구식 근대교육에 대해 계봉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明東, 光成, 昌東, 正東, 北一等中學校도 次第로 起하고 磊子溝에는 大甸學校라는 養武의機關도 設立되야 八十餘 健兒를 教養하다가 時勢의 不利로 中途의 廢는 되었지만 現今 中俄 兩領에 爲國獻身하는 青年은 其中으로서 出來한 者一最多數이며 學校教育뿐 아니라 社會教育이 아울러 興進하여 一般民志가 不知不覺中에 丕變됨으로 至今은 教師에게 禮敬만 倍重할 뿐 아니라 相當한 月銀도 잇게 되었다 目下 八十餘 小學校에 學生의 思想界를 보면 智識보다 精神이 多리히 倍加하다 이것은 教育者가 復讐主義로 精神上에 最專力함이다.¹³⁾ (강조- 인용자)

사실 남만주의 삼원포와 달리 동만주지역의 한인사회는 중국 당국의 강한 통치력이 미치고 있는 데다, 간도협약에 따라 일본의 영사관 경찰이 곳곳에 주재하며 감시하고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무장을 직접

11) 님 웨일즈 지음, 조우화 옮김, 1984, 『아리랑』, 동녘, 77-78쪽.

12) 자세한 내용은 박걸순, 2009, 『북간도 간민회의 해산과 추이』, 『중앙사론』 30 참조.

13) 四方子, 『北墾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 1920.1.1.

준비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가 곤란하였다. 대신에 동만주지역 한인사회의 열망이기도 한 근대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 항일의 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동만주지역 한인사회의 학교교육은 남만주지역의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처럼 군사교육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 서구식 가치관을 주로 전달하는 근대학교에서 애국심과 인간성 교육에 집중하였다. 계봉우의 회고처럼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정신력 강화에 교육의 중심이 있었다. 만주의 조선인 근대학교를 ‘독립군 예비 양성소’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무력을 기르는 ‘양무’교육은 예외적이었다. 결국 동만주지역 한인사회의 중심지인 국자가, 용정은 삼원포와 달리 무장을 직접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한인사회의 자치와 근대교육의 중심지였다.

2. 봉오동과 그 일대를 통해 본 동만주지역 운동공간

1910년대까지만 해도 용정, 국자가와 같은 동만주지역인데 1919,20년 시점에 이르면 용정 및 국자가 한인사회와 다른 양상이 펼쳐진 곳이 왕청현의 서대파 일대와 봉오동 일대이다. 용정과 국자가에 비하면 한적 시골 마을들이 있는 곳이었다. 사실상 조선인만 거주하거나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곳이었다. 일본인은 없었다고 보아도 좋은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의 변화는 최운산과 그의 큰 형인 최명록 등의 형제가 1910년 봉오동 골짜기로 이주한 후 왕청현과 훈춘현 일대에 경제 기반을 닦으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理財에 밝았던 최운산이 봉오동 전체를 매입하였고, 그 일대의 석현, 대감자, 곡수, 도문, 남양 등지의 매우 광활한 땅도 매입하여 경작하였다. 현지의 중국 군벌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왕청현 춘화향 嘎呀河 일대에만 1,500畝 가량의 땅을 소유하였다.¹⁴⁾ 최운산은 농지만 소유하며 농업에만 종사하지 않고 목축과 油脂가공업 등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 갔다. 이를 지키기 위해 자위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최운산을 비롯한

14) 楊昭全 等, 2007, 『中国朝鮮族革命闘争史』, 吉林人民出版社, 155쪽.

형제의 경제활동 중심지가 봉오동 골짜기였다.

봉오동 자체는 ‘봉오골’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봉오동전투 현장에 간다면 보고 오는 봉오동저수지 수문 근처가 봉오동의 전부가 아니다.¹⁵⁾ 수문 근처는 봉오골의 입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곳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만 계산해도 8~10km가량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양쪽에 쭉 뻗어 있다. 골짜기의 입구에서 2~3km 들어가면 하촌, 다시 호박골 입구까지 들어가면 姜村부터 호박골, 마촌, 태촌, 박촌, 조촌이 있었다. 호박골에서 3km 더 올라가면 북동과 남동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골짜기의 중촌에는 공립제3학교가 있었고, 상촌의 북동에는 조선인 봉오동사립학교가 있었다.¹⁶⁾

가야하 상류 지점에 있던 봉오동은 북쪽에 광복단의 근거지인 大坎子, 서남쪽에 신민단의 근거지인 석현, 동북쪽 대한군정서가 있는 서대파로도 갈 수 있어 사통팔달의 연결 거점이기도 하였다. 더 넓혀서 봉오동의 전략적 위치를 보면, 서쪽은 연길현의 국자가, 용정과 연결될 수 있었고,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남양과 마주하고 있었다. 동쪽은 훈춘을 거쳐 러시아 국경까지 넘나들 수 있었다. 최운산 등이 봉오동 골짜기를 매입한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 이강훈은 봉오동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 15) 필자는 2017년 여름에 골짜기의 끝 지점까지 직접 가 보았다. 그곳이 봉오동전투 현장이었다. 능선에는 독립군이 파 놓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참호도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신주백, 2018, 『봉오동전투에 관한 기억의 流動과 새로운 기억을 향한 접근-지역으로서 동북아와 근원적 사실을 향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참조.
- 16)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최진동 장군』,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83쪽.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안화춘, 『봉오동 지구에 대한 사회조사』(1990.8.1.)이다. 이 책은 최운산에 관한 기록까지 모두 최진동의 행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안화춘의 조사를 바탕으로 봉오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 필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도 그렇고, 이제부터 인용할 회고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청현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40리 가량 떨어진 산간이다. 장백산의 지맥인 고려령의 험한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꾸불꾸불 갈지(之)자형으로 장장 2십 리를 뻗은 계곡 지대에 1백 수십 호의 민가가** 흩어져 있었다. 이 부락에는 최명록 3형제가 있어서 그들의 지도 밑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써 재류동포의 생활과 기타 모든 면에서 잘 짜여져 있었다.** 가옥구조도 한국식이어서 마치 국내의 한 지방 같았다. 중국인 가옥이 몇 집 끼어 있어서 며칠 있어서 며칠 만에 한 번씩 중국 관헌이 순리를 돌 뿐 **독립군의 자유무대였다.**¹⁷⁾ (강조-인용자)

그러면서 이강훈은 봉오동의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하촌, 중촌, 상촌까지의 촌락은 군사촌으로 개발된 곳이었는데, 특히 군무도독부의 지휘부가 있던 상촌이 ‘요새’와 같았다고 회상하였다. 봉오동을 거점으로 하는 독립군의 이름이 1919년 결성된 군무도독부였다. 독립운동가 김승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군무도독부는 - 인용자) 3·1독립선언 후 일어난 단체로서 **본부를 왕청현 석현에 두고 최진동(일명 명록) 삼형제가 주동이** 되어 활동한 단체이다. 독립군 오백여명 장총 오백여정을 갖고 있었으며 군복은 중국 군인 복색과 같은 회색을 착용하였으므로 **중국 군인과 구별하기 곤란하였다.** 부장에는 최진동(함북 온성 출신이며 중국 군대에서 다년간 전투 경험이 있음), 사령관 이봉남, 부사령관 이원, 참모장에 김호석이었다.……¹⁸⁾ (강조-인용자)

봉오동이 속한 왕청현 일대는 대한국민회의 핵심 기반이 있던 용정, 국가가하고도 달랐고, 오히려 무장세력을 직접 육성하고 있던 서간도 삼원포와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다. 독립된 무장대와 그에 기초가 되는 독자의 물적 기반을 두고 무장투쟁을 우선하는 활동을 벌인 점이 그렇다. 따라서 봉오동은 삼원포 일대처럼 독립군 기지였다. 그곳에 군무도독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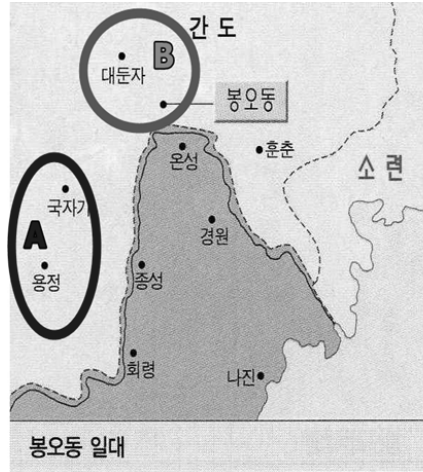
군무도독부와 대비되는 동만주지역의 대표적인 항일단체가 대한국민회

17) 이강훈, 1975, 『무장독립운동사』, 서문당, 95-96쪽.

18) 김승학 편저, 1965, 『한국독립사』, 국사편찬위원회, 391쪽.

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한국민회의 지방조직인 지방총회 - 지회는 대부분 연결현과 화룡현에 있었다. 왕청현의 경우는 양수천자, 훈춘현의 경우는 양수하자에 대한국민회의 조직이 있기는 했지만, 봉오동과 그 주변에 연결현과 화룡현에서처럼 여러 곳에 확실한 기반을 두지 못하였다. 반대로 대종교에 기반을 두고 왕청현 서대파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북로군정서나 孔敎會員이 많았던 군무도독부는 연결현과 화룡

〈지도 2〉 동만주의 주요 지역과 봉오동 비교: 대둔자가 대감자이다.



출전: 유영렬 외,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3, 187쪽.

현에서 대한국민회에 비해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다. 더구나 기독교인이 많이 참여한 대한국민회는 민정 계통의 연계망이 튼튼했던데 비해 군사조직이 매우 취약하였다. 안무가 지휘하는 국민회군은 연결현 의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수준이었다. 독립군이라기보다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렇다 할 항일 군사활동도 없었다.¹⁹⁾ 달리 말하면 대한국민회는 독립군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19,20년의 시점에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은 대한국민회가 주로 활동한 연결현, 화룡현 일대와 군무도독부가 주둔한 왕청현 봉오동과 그 일대, 그리고 북로군정서군이 주둔한 왕청현 서대파와 그 일대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지 말고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로 민정 관계의 활동이 활발했던 대한국민회와 군대의 무장활동이 중심이

19) 대한국민회에 대해서는 장석홍, 1990, 『대한국민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박창욱, 1990, 『국민회를 논함-1919~1920년 국민회의 역사작용을 위주로 하여』, 『국사관논총』 15; 박환, 1990, 『북간도 대한국민회의 성립과 활동』,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참조.

었던 군무도독부 등의 활동방식 및 중심 활동공간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1919,20년 시점에 동만주라는 곳의 민족운동 공간은 앞의 <지도 2>처럼 A와 B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선이 있어야 두 만강을 사이에 두고 식민지 조선과 인접한 동만주지역의 여러 곳 가운데 왜 하필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싸움이 일어났는가를 해명할 수 있는 단초를 잡을 수 있다.

Ⅲ. ‘독립전쟁 제1회전’과 통합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

1920년 6월 7일 봉오동전투가 일어난 직후인 10일에 대한국민회 산하 ‘제2 중부 회장’ 강구우는 대승리를 거둔 이 전투를 ‘독립전쟁 제1회전’이라 부르며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선전하였다.²⁰⁾ 대한국민회 산하 ‘제2 북지방 회장’ 김정 또한 6월 13일자 指明書에서 봉오동전투를 ‘大捷’이라 명명하였다.²¹⁾ 당시 민족운동가 자신들이 봉오동전투를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비롯해 만주지역의 민족운동가들 대부분이 그리 생각하였다. 그들은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간주하였다.

그렇다면 봉오동전투를 독립전쟁의 일부로 간주한 이들은 1920년 6월의 시점에서 어떤 독립전쟁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을까. 이제 ‘제Ⅲ장’에서 전자에 관해 살펴보고, 후자는 ‘제Ⅳ장’에서 동만주지역 독립군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920년 6월 시점의 독립전쟁에 관한 독립군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봉오동전투에 참가한 독립군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

20) 『8203(暗) 제166호 不逞鮮人團의 승리선전(1920.6.1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18』, 309쪽. 界与三吉(總領事代理)가 内田康哉(外務大臣)에게 보낸 문서이다.

21) 『機密 제149호 国民會가 살포한 指明書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18』, 326쪽.

시정부의 독립전쟁 전략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의 계획과 움직임을 파악하면 봉오동전투에 임하는 독립군의 정체인식과 전략적 사고를 알 수 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자.

주지하듯이 3·1운동의 큰 영향 가운데 하나가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다. 임시정부는 노력의 대한인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결합한 가운데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하여 성립하였다.²²⁾ 흔히 이를 통합 임시정부라 한다.

통합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에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전문을 보면 정부 형태의 민족운동 지도기관을 조직하려 한 이유를 시사받을 수 있다.

我 대한민국은 아국의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어하였도다. 此로써 세계만방에 誥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誥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仗하여 이천만 민중의 誠忠를 합하여 민족의 恒久如一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體하여 4월 11일에 발포한 십 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서 公理를 彰明하며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籌備하며 정부의 기초를 공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²³⁾

3·1독립선언서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며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한 상태였는데, 민족운동가로서는 정부 형태가 아닌 민족운동 지도기관을 수립하는 접근방식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다수의 민족운동가가 정부를 조직하는 일을 당연시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3·1독립선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 임시정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였다.²⁴⁾

22) 이 시기 임시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1-상해시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를 참조하였다.

23) 한시준 편,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44쪽.

24) 민주공화제의 내적 맥락에 관한 언급은 신주백, 2017, 『1910년 전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체로 정치이념의 전환-공화론과 대동론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참조.

정부가 있으니 군대가 있는 것 또한 당연하였다. 그 군대에 소속된 병사들은 신분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권이 있는 국민의 일원이었다. 동만주지역의 독립군, 좁게 말해 봉오동전투에 참전한 독립군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통합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무력항쟁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파리강화회의가 끝나고, 제1회 국제연맹이 열리는데 대비하여 외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가 끝나고 통합 임시정부가 들어선 즈음인 9월경 통합 임시정부의 전략을 시사받을 수 있는 아래 문장에서 확인된다.

「언제나 獨立이 되나. 「언제 저의 놈들이 다 가나」 하는 것이 우리二千萬男女同胞의 晝宵로 企望하고 祝願하는 바라 **일즉 平和會議를 希望하였고 只수는 國際聯盟을 希望하며 或은 美日의 交戰을 生か하고 或은 日本 自身の 革命的 破滅을 生か하며 或 數十萬 大兵이 鴨綠江 豆滿江으로 疾風갓히 쫓쳐들어와 死보다도 괴로운 壓制와 羞侮의 主人인 異民族을 말금 逐出하기를 苦待하도다. 다 虛된 生か은 아니니 다 잇슬 만한 일이오 希望할 만한 일라. 國際聯盟 第一回를 我獨立完成의 機會로 알은 充分한 理由와 根據가 有한 일이라. 故므로 臨時政府는 去六月부터 對國際聯盟策에 全力을 다하야 一邊 韓日關係史料 獨立運動史料及 日本의 占領과 韓族과의 關係를 調査하야 大部를 完成하야 이미 各國語로 翻譯하는 中이며 一邊 國際聯盟會에 提出할 條件을 研究 決定하고 一邊 巴黎, 倫敦, 제네바, 華盛頓 필라델피아, 紐約, 桑港, 上海 等地에 宣傳局을 設하야 獨立運動의 真相을 宣傳하며 從此로 中央歐羅巴 濠洲, 日本 等地에도 大대의 宣傳運動을 起하리라 하니 美國上院에 累次 提出되었고 또 方今 上院議員 스펜서氏의 손으로 提出된 韓國獨立援助案 美國 各教派의 韓國獨立援助決議, 全버지니아州 人民의 韓國獨立承認及援助請願書, 各階級의 名士로 組織된 韓國獨立後援會 等은 實로 此宣傳運動의 反響이오 不遠한 國際聯盟會에 對한 我運動의 基礎가 될지라.²⁵⁾ (강조-인용자)**

덧붙이자면, 임시정부의 민권은 대동론의 한국적 근대 언어인 균등론, 곧 평등론으로 구체화하였다. 신주백, 2018, 「‘민주공화제’론과 비자본주의를 지향한 ‘민족주의운동’과 파’(1919~45)」, 『역사와 현실』 108 참조.

이렇듯 통합 임시정부는 제1회 국제연맹이 열렸을 때를 ‘독립을 완성하는 시기’로 간주하고 외교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설립되지도 못했다. 통합 임시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지 않은 것이다.²⁶⁾

이어 통합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장 주목한 정세가 미국과 일본의 전쟁 가능성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설은 망국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때는 중국문제가 중심인 동아시아의 전후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에 근거하고 있었다. 통합 임시정부가 미일전쟁설과 독립전쟁의 상관성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었는지는 아래 글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西比利亞는 過軍의 手中에 入하였다, 過軍은 日本과 싸호라 한다, 俄國은 大韓의 獨立을 承認하였고 大韓의 獨立을 援助하기를 聲言하였다.

中國은 起하려 한다, 山東問題와 韓國獨立援助問題를 提하고 起하려 한다
美國은 山東問題로 日本을 抵制하고 韓國獨立運動을 援助하라는 소리는 上院에 下院에 報紙에 教會에 演說會에 瀰滿하였다

時哉時哉라 天이 주신 時로다 뒤라서 이러한 好時機가 이리케 速히 來到할 줄을 預想하였던고

獨立軍을 編成하자, 國民아 나셔거라, 太極旗를 날리는 飛行機가 三角山 한 모퉁이로 도라들 날이 멀지 아니하다.

아아 大韓의 男女야, 날어나거라 나셔거라.²⁷⁾ (강조-인용자)

그래서였을까. 안창호는 1920년 1월 1일 통합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의 축사 제목을 『新年은 戰爭의 年』이라 하고, “우리가 오래 기다리던 獨立戰爭

25) 『獨立完成時機』, 『獨立新聞』 1919.11.1.

26) 통합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 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실패로 단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당시의 움직임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뼈뺀 시선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파리강화회의가 진승국을 위한 회의였고, 일본은 5대 상임 이사국의 일원으로 국제 지위가 높았다는데 실패의 근본 요인, 곧 당시 국제 역학구도에서 통합 임시정부의 구미 외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정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란 진단은 과도한 지적이다.

27) 『時事短評』, 『獨立新聞』 1920.2.7.

의時機는今年인가 하오 獨立戰爭의年이 닮은 것을 깃벼하오”라고 말할 정도였다.²⁸⁾ 그래서 『獨立新聞』은 “明年 이날은 우리 漢城에서 新年祝賀會를 열고야 만다 今年 一年 안에는 우리의 神聖國土를 恢復하고야 만다 獨立은 하고야 만다 簡單히 말하면 이것이 一般의 感想이었다. 同時에 決心이었다”고 회의장의 분위기를 전하였다.²⁹⁾ 안창호는 이틀 뒤인 3일에 열린 민단 주최 신년 축하회에서 『우리 國民의 斷定코 實行할 六大事』란 제목의 긴 연설까지 하였다. 이때 통합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벌일 때 가장 결정적인 활약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만주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무원포고』 제1호도 두 지역 동포의 단결과 지원을 호소하였다.³⁰⁾

1920년 신년 모임은 즉각 독립전쟁이 일어날 듯이 말잔치가 풍성했지만 이후 시간이 경과하며 ‘준비’가 강조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신년 모임에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발표된 『국무원포고』 제1호는 1920년을 ‘獨立大戰爭의 第一年을 作할’ 시기로 규정하였다. 이미 안창호는 민단의 신년회에서 연설할 때 ‘6大事’에서 독립하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으므로 군사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전쟁에는 준비가 필요한데, 통일적 행동, ‘訓練과 國民皆兵主義’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 임시정부가 취했던 조치의 하나가 군사제도를 갖추는 움직임이고, 만주에 파견원을 보내 통일 조직을 결성하는 움직임이었다. 1919년 11월 서로군정서, 12월 대한군정서를 편성한 움직임이 전자의 방침에 호응한 결과였다면, 후자의 움직임은 1920년 6월 동만주지역에 왕삼덕과 안정근을 파견하는 일로 구체화하였다.

이처럼 1919,20년의 시점에서 통합 임시정부는 외교정책에서 독립전쟁을 배제하거나 군사활동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1919,20년의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활동에 큰 비중을 두는 한편에서, 무장독립전쟁을 여기에 연동시켜 사고하는 정세인식과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을 뿐이다. 1919,20년 시점에 독립

28) 『戰爭의 年』, 『獨立新聞』 1920.1.17.

29) 『臨時政府新年祝賀會』, 『獨立新聞』 1920.1.8.

30) 『國務院布告 第一號』, 『獨立新聞』 1920.2.5.

전쟁론의 특징이 여기에 있었다. 이제 ‘제Ⅳ장’에서 동만주지역 독립군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자.

Ⅳ. ‘독립군 기지 봉오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전쟁 준비

1. 통합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과 동만주의 독립군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에서도 민족운동이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³¹⁾ 용정의 3·13만세시위를 비롯해 한인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한인사회의 돌아오른 반일 열기는 1919년 한 해에만 동만주와 남만주 일대에서 60여 개의 단체가 결성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새로 결성된 단체에는 국내 등지에서 모여든 청년이 많이 가입하였다.

만주에서의 대중적인 애국열은 독립군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이었다. 그 중심에 이동휘가 있었다. 이동휘는 노령과 만주를 왕래하며 무기를 구입하고 독립군을 조직하는 한편,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열강으로부터 교전단체로서의 자격을 승인받고자 독립전쟁의 방향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1919년 4월 훈춘현에서 대한국민회의 지도자 구춘선 등을 만나 무장투쟁 방침을 협의하였다.

이동휘는 동만주 일대의 민족운동 관계자들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자신의 독립전쟁론으로 포섭하는 한편, 상해에서 온 이동녕과도 1919년 6월 길림에서 만나 통합문제를 논의하였다. 7월에 한인사회당의 간부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9월 18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11월 이동휘가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통합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은 더욱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동휘는 미·일 전쟁 만이 아니라 중·일 또는 소·일 사이의 전

31) 동만주지역 독립군과 이동휘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신주백, 2005, 『1920, 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선인, ‘제1장’ 참조.

쟁을 피할 수 없는데, 이때 일본과 싸우는 국가의 군대와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독립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자고 주장하였다.³²⁾ 이동휘는 교전단체론을 계속 주장했지만, 그가 말하는 교전단체란 국제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일본과 싸우는 연합세력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교전단체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무장투쟁에 바탕을 둔 외교론과는 크게 다른 교전단체론이다.

동만주에서 이동휘의 독립전쟁론을 실천한 사람은 홍범도였다. 이동휘는 만주지역의 지도자들과 무장투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는 비슷한 시점인 5월경 秋豊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홍범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³³⁾ 홍범도는 1919년 8월 8일 106명의 대원을 이끌고 노령에서 동만주로 출발하였다. 만주에 입경한 그는 훈춘현 草帽頂子を 거쳐 10월 14일 연길현 “蛤蟆塘 예수촌”이라 불리는 곳에 도착하였다.³⁴⁾ 이후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군자금을 모집하고,³⁵⁾ 대한국민회 決死隊에게서 물자를 지원받았다.³⁶⁾

동만주지역에서 홍범도의 활동에 큰 힘이 된 단체는 대한국민회였다. 대한국민회는 1919년 10월에 발표한 「諭告」에서 통합 임시정부가 인정한 ‘통일기관’이었다.³⁷⁾ 대한국민회의 「規則」 제2조도 “임시정부의 법령 범위 내에서 독립사업의 완성을 기도”하겠다고 나온다.³⁸⁾ 대한국민회만이 그렇게

32) 梶村秀樹 姜徳相 編, 1967, 『朝特報 第8号 鮮内外一般ノ狀況(1920.2.5)』, 『現代史資料』 26, みすず書房, 296쪽.

33) 梶村秀樹·姜徳相 編, 1967, 『騷密 第2439号 独立運動ニ関スル件(1919.5. 16)』, 위의 책 26, 173쪽.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홍범도의 일지(1958.4.16)』,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쪽. 新民團이 결성된 草帽頂子에는 기독교와 성리교도가 많고, 기독교도가 주로 거주한 蛤蟆塘에는 大韓國民會 본부가 있었다.

35) 『獨立新聞』 1919년 10월 28일자에서 홍범도의 부대의 대한독립군이란 이름은 처음 확인된다. 기사에는 大韓獨立軍歡迎團 이름의 「大韓獨立軍歡迎趣旨書」가 있다.

36) 박창욱, 1990, 「국민회를 논함」, 『국사관논총』 15, 206쪽. 일본의 경찰 정보 자료마다 홍범도의 행적이 많이 다르다. 복잡하지만 시간별로 그의 행적을 정리한 글로는 金靜美, 1986, 『朝鮮獨立運動史上における1920年10月』, 『朝鮮民族運動史研究』 3, 116-120쪽 참조.

37) 『獨立新聞』 1920.1.10.

38) 국가보훈처, 1997, 『북간도지역 독립군단명부』, 186쪽. 일본 외교사료관의 『間島方面ニ於ケル不逞鮮人團ノ組織及役員調査書(1920.4)』를 國家報勲處에서 편집한 자료다.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신민단 역시 1919년 7월 6일자로 임시정부를 승인하였다.³⁹⁾ 大韓獨立軍도 통합 임시정부의 군무부에서 명령하는데 따라 3대 결의사항의 하나로 군정과 사무를 실시하겠다고 결의하였다.⁴⁰⁾ 김좌진, 서일 등은 1919년 10월에 결성한 軍政府를 통합 임시정부를 지지함에 따라 12월에 大韓軍政署로 바꾸었다. 여기에 호응하듯이 이동휘 역시 간도지역 “조선 독립운동 간부”들에게 1919년 11월 27일자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고충을 보고 충성을 안다면, 함께 임시정부를 ‘擁戴’하자고 호소하였다.⁴¹⁾

2. 동만주지역 독립군의 통합 논의 과정과 독립군 기지 봉오동

통합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와 체제 정비에 나서기 시작하는 즈음 동만주지역에서도 자체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통합 논의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그에 맞추어 부대 이름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렀던 1919년과는 달랐다.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춘 군사 조직과 이를 뒷받침해 줄 민정 조직의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이제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⁴²⁾

대한국민회와 군무도독부, 대한독립군 등 각 단체의 대표자 40명은 1920년 3월 8일부터 3일간 왕청현 蛤蟆塘의 上村에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 비록 復辟主義를 내세운 大韓光復團의 이범윤 등이 “復辟을企圖”했기 때문에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⁴³⁾ 통합의지만은 확인한 자리였다.

다시 5월 3일 6개 단체의 대표자가 왕청현 ‘鳳儀洞’, 곧 봉오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곳에 모여 서약서를 채택하였다.⁴⁴⁾ 이때부터 봉오동이 독립군의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중심 공간이 되었다. 앞서 ‘제Ⅲ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봉오동 골짜기는 수백 명의 독립군이 안정되게 주둔하며 훈련

39) 梶村秀樹·姜徳相 編, 1967, 『騒密 第6126号 独立運動ニ関スル件(1919.8.5)』, 앞의 책 26, 251쪽.

40) 『獨立新聞』 1919.10.28.

41) 梶村秀樹·姜徳相 編, 1970,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0쪽.

42) 통합논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주백, 2005, 앞의 책, ‘제1장’ 참조.

43) 梶村秀樹·姜徳相 編, 1967, 『朝特報 第21号 鮮内外一般ノ状況(1920.4.5)』, 앞의 책 26, 301쪽.
대표적인 참석자: 洪範凶·具春先·李範允·金光国·洪林·徐成權·黃丙吉·田義根 등.

44) 참가단체: 新民團·大韓軍政署·軍務都督府·光復團·義軍府·大韓國民會.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최운산의 경제력으로 의복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무기를 보충할 수도 있었다.

대표자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5월 11일까지 참가 단체의 募捐隊를 소환하고 지방기관을 설립하며, 民意에 따라 사람을 모으고, ‘協議會’(매월 1일, 15일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는 등 18개 조항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⁴⁵⁾ 6개 단체가 구성한 협의회는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다. 동만주지역 민족운동 세력의 주도권을 공화주의 세력이 확실히 장악한 것이다.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민족운동 세력은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한국민회의 대표 김병흡과 군무위원회 대표 안무, 그리고 군무도독부의 대표 최진동이 5월 19일 봉오동에 모여 大韓北路督軍府를 결성하였다. 봉오동에 집결해 있던 흥법도의 대한독립군도 대한북로독군부의 편성에 참가하였다.⁴⁶⁾ 대표자들은 회합에서 대한국민회는 행정기관, 대한북로독군부는 군사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한국민회가 대한북로독군부를 ‘보조’하여 모든 “軍務를 籌備”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⁷⁾ 군정과 민정 조직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만주지역 독립군의 국내 진격 활동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즈음부터 본격화하였다. 가령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대한군정서는 1920년 3월부터 봉오동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인 5월경까지 함경북도 온성군에만 9회 가량 침투하여 일제의 통치기관과 친일파를 공격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독립군의 활동이 조선 통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동만주지역이 “어제의 樂土가 아니라 불령선인의 소굴로” 바뀌었으므로 독립군의 동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⁴⁸⁾ 이때 일어난 사건이 6월 4일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에 있던

45) 梶村秀樹·姜徳相 編, 1970, 앞의 책 27, 391-392쪽.

46) 대한독립군은 국민회군처럼 대한국민회와 같은 민정 조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무도독부처럼 경제적 토대는 차지하고 군대가 주둔할 안정된 거점도 동만주에 있지 않았다. 흥법도의 대한독립군이 대한국민회의 후원을 받다 봉오동에 주둔한 이유도 이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47) 국가보훈처, 1997, 앞의 책, 259쪽.

일본군 순찰 소대를 신민단의 독립군이 기습한 일이었다.

기습을 당한 일본군 남양수비대는 소대 병력으로 추격대를 만들어 두만강 너머의 삼둔자를 습격하였다. 독립군은 이들의 공격도 물리쳤다. 그러자 일본군은 더 큰 추격대인 월강추격대를 편성하고 6월 7일 왕청현 봉오동을 습격하였다. 당시 봉오동에는 대한북로독군부 산하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연합하여 일본군의 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이를 봉오동전투라 한다.

통합논의는 봉오동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각 독립군의 지도부는 화룡현, 왕청현, 연길현의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마침 통합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안정근과 왕삼덕이 두 개의 조직으로 통폐합을 요구하였다. 강한 통일성을 요구받자,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통합논의에 강력한 파열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실패하였다. 10월의 청산리전투 당시 독립군은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북로군정서, 그리고 왕청현 라자구를 향해 북진했던 군무도독부 등으로 크게 분립된 채 일본군과 싸워야 했다.

V. 맺음말

이처럼 논문에서는 민족운동 공간으로서 동만주지역의 특징과 독립군의 활동 양상에 주목하였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석고화된 기억을 재구성하고 독립군 기지인 봉오동에서 전투가 일어난 배경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1919,20년의 시점에 동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와도 달랐다. 그때의 민족운동을 근절하고 평면적으로 보이어서는 역사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1919,20년 시점에서 동만주지역 민족운동은 연길현, 화룡현, 그리고 왕청현, 훈춘현으로 활동 공간이 나뉜다. 그들의 주요한 활동 방식도 달

48)金正柱 編, 1971, 『間島ニ於ケル不逞鮮人團ノ狀況(1920.10)』, 『朝鮮統治史料』 8, 206쪽.

랐다. 단체로 표현하면 대한국민회와 군무도독부를 들 수 있다.

공간을 둘로 구분하는 접근은 동만주지역 민족운동을 균질하게, 달리 말하면 평면적으로 보지 않게 한다. 그 과정은 동시에 동만주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시선으로 동만주지역 민족운동을 획일화하고 석고화해 온 우리의 기억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연결현, 화룡현과 다른 ‘독립군 기지로서 봉오동’이란 새로운 시선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또한 공간을 둘로 구분하고 재조명하는 과정은 두만강과 인접한 동만주지역 가운데 왕청현의 삼둔자와 봉오동에서 왜 일본군과 싸움이 있었는가를 자연스럽게 납득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군무도독부를 비롯해 대한북로독군부의 활동공간이었던 ‘독립군 기지로서 봉오동’이란 구체적인 현실 공간과 전투의 정합적인 접목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동만주지역의 두 공간에서 활동한 독립군의 독립전쟁론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인 부분에서까지 일치했다고 볼 수 없다. 독립군기지에서 진지전을 중심으로 무장활동을 벌이려 했던 독립군도 있었고, 유격전 방식을 선호한 독립군도 있었다. 독립군의 역량을 보존하는데 치중하는 노력이 곧 독립전쟁론이라 생각하는 독립군도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일본군과 계속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립군도 있었다. 대한북로독군부에 참가한 독립군 내에서도 이에 관한 편차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움직임을 관통하는 사실은 독립을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독립전쟁론의 전략론에 동조하였다. 그들이 지향한 독립전쟁론이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정치·경제적인 실력을 양성하여 충분히 독립할 실력을 갖추었다가 미·일, 중·일, 러·일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호기로 삼아 일제를 상대로 ‘자력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한다.’⁴⁹⁾

이러한 전략방침은 물론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20년 시점에 독립전쟁론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긴박한 현실을 반영한 전략론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당장 일본과 전쟁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다기보다 아직은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움직였다. 그들이 준비에 나서도록 한데는 전략인식, 곧 新民會 시기부터 일본과 타국간의 모순이 폭발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기회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거나 그럴 기회를 포착한다는 인식과 연관이 있었다. 필자는 독립전쟁론자가 무장투쟁의 결정적 시기를 일제와 한인 대중간의 내재적인 모순의 폭발에서 찾지 않고, 일제와 외세 사이의 외적인 모순, 특히 전쟁에서 찾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對外情勢 活用論이라 명명하고 있다.⁵⁰⁾

1920년 6월에 일어난 봉오동전투는 봉오동 골짜기 일대의 지리적, 물적 조건을 바탕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두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과의 수차례 전투를 할 수 있었다. 모든 싸움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일환이기도 하였다. 봉오동전투는 그때까지의 정점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이었다. 달리 말하면 1920년 독립전쟁 ‘제1년’ 차에 봉오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가던 동만주지역 독립군 조직의 군사적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하지만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대외정세 활용론에 입각하여 독립전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싸움이었다.

49) 이와 관련한 지도는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8쪽 참조.

50) 신주백, 1996, 위의 책, 18쪽.

참고문헌

『獨立新聞』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 18』

국가보훈처, 1997, 『북간도지역 독립군단명부』

김승학 편저, 1963, 『한국독립사』, 국사편찬위원회

님 웨일즈 지음, 조우화 옮김, 1984, 『아리랑』, 동녘

梶村秀樹 姜德相 編, 1967, 『現代史資料』 26, みすず書房

梶村秀樹 姜德相 編, 1970,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이강훈, 1975, 『무장독립운동사』 서문당

이은숙, 1981,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홍범도의 일지(1958.4.16)』,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시준 편,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김희곤,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 I-상해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2006, 『최진동 장군』,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서중석, 2001, 『신홍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신주백, 2005,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선인

金靜美, 1986, 『朝鮮獨立運動史上における1920年10月』, 『朝鮮民族運動史研究』 3

박걸순, 2009, 『북간도 간민회의 해산과 추이』, 『중앙사론』 30

박창욱, 1990, 『국민회를 논함』, 『국사관논총』 15

박환, 1990, 『북간도 대한국민회의 성립과 활동』,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신용하, 1986,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한국학보』 43

신주백, 2017, 『1910년 전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체로 정치이념의 전환-공화론과 대동론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신주백, 2018, 『“민주공화제”론과 비자본주의를 지향한 ‘민족주의운동 좌파’(1919~45)』, 『역사와 현실』 108

신주백, 2018, 『봉오동전투에 관한 기억의 유동과 새로운 기억을 향한 접근-지역으로서 동북아와 근원적 사실을 향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楊昭全 等, 2007,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 吉林人民出版社

유준기, 2005, 『독립운동 기지 한홍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이승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장석홍, 1990, 『대한국민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투고일 : 2018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0월 30일

■ Abstract ■

Reconfiguration of the Memory that Became Gypsum and Background of Bongo-dong Battle(鳳梧洞戰鬪)

Sin, Juback(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Bongo-dong battle by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 space and its activiti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uthor is the problem consciousness that the period called 1919, 20years in East-Manchuria-region was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at, and the problem consciousness that the ethnic movement at that time can not be seen even in a homogeneous and planar manner.

The ethnic movement space of East-Manchuria-region can be divided into two. It is divided into two spaces in terms of the independent space of the independent army and the main activity system (civilian vs. military).

Bongo-dong, which was the activity space of gunnmudodokbu(軍務都督府), was an “independence army base”.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the gypsy memories of the East-Manchuria-region as one of the ethnic movements. Bongo-dong had an independent military base that was not in Yŏn'gil-hyŏn and Hwaryong-hyŏn. From this point of view, we can naturally explain why the battle took place in the Bongo-dong among the East-Manchuria-region adjacent to the Dooman river.

Key words : Memory, National Movement, Theory of Independence War, Theory of Utilizing External Situation, Battle of Bongodong, Leedonghwi